

긴급진단 전남 F1 10년

1조짜리 '전시행정'... 빛더미 안고 '스톱'

〈上〉 수지 분석해보니

전남도가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대회)가 추진 10년만인 2015년 기로에 섰다. 2014년부터 잇따라 대회를 열지 못하고, 계약상 마지막인 2016년에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져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F1 사업의 수지분석부터 계약 전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형세가 투입되는 지자체 투자 사업의 선택과 추진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

8752억 투입·1185억 수익

시설비 회수에 800년 걸려

'백서' 발간해 책임 따져야

지난 2006년 F1 대회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체육과학연구원·한국자동차경주협회·한국자동차공학회 등은 F1 대회 개최 시 첫해인 2010년 7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11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 연평균 159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F1경주장 건설에 부지 매입비 300억원, 건설비 2000억원 등 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전남도는 2006년 F1 대회를 유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7년간 F1 대회를 치르기로 한 F1 조직위원회와 포물러인 매니지먼트(FOM)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대회를 열지 못했다. 2014년에는 개최권료 협상 실패, 올해는 준비 미흡 등이 그 이유였지만, 실상은 대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쌓이는 '채무'로 인해 민선 6기 전남도가 개최



영암 F1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지에서 제외된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전남도가 F1 대회와 관련해 투입한 예산이 8752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후 텅 빈 영암군 삼호읍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영암 F1대회 수지분석

◆ 시설비		〈단위: 억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비고
도비	3.447	880	312	2.255	-	
국비	728	-	528	200	-	2014년 임대수익
특별교부세	110	-	40	40	30	5억3000만원
총계	4.285	880	880	2.495	30	

◆ 운영비		〈단위: 억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1.970	528	632	508	302	
운영비	1.097	391	293	225	188	
기타		카보 출자금: 173, 금융비용: 573, 기반시설: 654				
총계	4.467					

를 미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FOM은 비교적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위약금 요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전남도에 묻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F1으로 인한 전남도의 채무

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최종 만료되기 전까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7년간 1조40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518억원의 소득유발효과, 693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란 'F1'은 결국 천문학적 빚만 남긴

채 쓸쓸히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일보가 전남도와 F1 조직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건네받은 '2008~2014년 F1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서킷(5.615km), 스탠드(11만8351석) 등 주요시설과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 728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도비 3447억원 등 4285억원을 썼다. 용역보고서보다 1985억원이 초과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80억원, 2010년 880억원, 2011년 2495억원, 2012년 30억원을 집행했다. 2010년 첫 대회를 개최한 뒤 전체 시설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2525억원을 지출, 예산 집행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동영, 새정치 탈당 '국민모임' 합류

4월 보선 야권 분열 '비상'

천정배 전 장관 등 거취 고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탈당과 함께 신당창당 준비모임인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에 합류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정 상임고문의 신당행은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 당권 경쟁구도 및 4월 재보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야권 재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고민끝에 새정치연합을 떠나 '국민모임'의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어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지지하는 합리적 진보 정치, 평화·복지·생태국가의 대의에 동의한다"며 "이 길만이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며,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이 길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고문은 "새정치연합의 당권과 강령에서 진보적 가치들이 사라졌다, 중도 우경화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런 가치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며 탈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상임고문과 함께 최규식, 김성호, 임

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천정배 전 의원 등 당내외 인사들도 신당 합류와 관련,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비상'이 걸렸다. 2·8 전대가 계파 전쟁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대선 주자까지 지냈던 정 고문의 탈당까지 겹치면서 민심의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고문의 탈당은 당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고문의 탈당으로 계파갈등에 따른 '분열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당내 최대 계파인 진노(진 노무현)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의 강세가 전망됐던 4월 보궐선거도 혼전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모임 측에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권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신당의 미래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쏘울' 100만대 돌파 ▶ 2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정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려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 광주살리시고(26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89학번) 졸업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산지검 검사
-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검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 광주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 서울서부지검 특수전담 검사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예서원 대표변호사 이 경 수 올림

■ 업무개시 : 2015. 1. 22(금) ■ 업무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342-13 신신빌딩 401호
■ 대표전화 : (062)229-7500 ■ 팩스 : (062)229-7007 ■ 개업시간 : 2015. 1. 22(금) 16:00부터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www.sulwhasoo.co.kr